

2013년 5월12일 일요일 날씨 매우 흐림

밤새 우르르광광하는 천둥번개때문인지 소풍가는 기분에 들떠서인지 잠을 거의 이루지못한 상태로 아침5시 일어났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정확히 1년이 지났다. 작년 오늘은 병원에서 오랜입원을 끝내고 퇴원을 했다. 1년동안 가벼운 운동과 좋은 생각들로만 지낸 결과, 오늘 걷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행복하다.

나의 소울메이트 예쁜 선희언니와 10시 백범공원에 집합을 했다.



이번 남산둘레길걷기대회는 노무현대통령추모4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행사인데 야무지게 노무현재단에서 구입한 귀여운 노란오리티셔츠를 모두가 맞춰입고 꼴찌부분에서 천천히 이런저런 얘기나누며 출발했다.

그런데 어느샌가 언니와 나는 가장 선두에 서서 걷고있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험하니 아무것도 없던 나뭇가지들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 새순들이 가득 피어나 좋은 공기들을 내게 주었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나 황홀했다.

개나리는 족고 철쭉이 피어나 튜립이 가득했다.

비록 날씨가 흐려서 남산타워나 멀리 미니어처같은 서울시내의 모습들이 흐리게 보였지만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있었고 무엇보다 더위를 식혀주어 시원해 기분좋았다.



5km쯤 오르막길을 걸었더니 12시쯤 되어 언니와 나는 배고픔에 부딪혀 일행들을 뒤로한채 버스를 타고 남산의 유명한 돈가스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치즈돈가스와 왕돈가스를 주문했는데 정말 90년대 경양식집 스타일의 이 돈가스란.. 가격은 비쌌지만 배고프기도했고 언니랑 무언가를 먹을 땐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한참 배를 채우고나니 식곤증이 몰려왔지만 오늘의 일정은 길었기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남산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국립극장에 들어갔다.

연극을 좋아하는 언니랑 나는 두달전에 벌써 티켓을 예매해놓고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이 곳 장민호백성희극장은 빨갭게 생긴 건물들로 이루어져있는데 항상 어렵지만 질 좋은 공연들이 많이 올라온다. 오늘 볼 연극의 제목은 칼집속에아버지. 제목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공
데
을
말



연 이 였 는
막 상 관 램
해 보 니 정
어 려 워 다.

그보다도 힘들었던 걷기대회와 돈가스의 여파로 연극을 보며 그렇게 좋아보기는 오래간만이
였다. 문득 배우들이 공연을 하다가 졸고있는 관객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툭툭 부은 발을 부여잡으며 즐기고 또 즐겼다.

소중한 주말의 시간들, 나는 언니와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더 공연을 보고싶었지만
도저히 힘들어서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언니는 뮤지컬을 보러 대학로로 갔기에 작별인
사를 하고 나는 서둘러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수술을 하고 1년간 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내 체력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큰 나며
지 조금 착각하고 있었나보다. 앞으로는 과한 일정들은 고려해서 더 즐거운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행복한 하루와 추억을 선물해 준 선희언니가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